

## ASIA 지역 IT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 컨퍼런스 (ATIE 2007) 성황리에 개최

올해로 12년차를 맞이한 ATIE(Asia Telecom & Information Exchange Forum) 2007 행사가 4월20일 협회 주최로 “Ubiquitous Life - Being Connected Anytime, Anywhere with Any Device” 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6개국 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아시아 주요 6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이 국가별로 IT산업 주요 현황 및 각국별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별 이슈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한국대표로 협회 이교용 부회장이 “Ubiquitous :

Korea's Daily Life”란 주제로 선진화된 한국 IT산업의 발전상을 소개, 각국 대표기관의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일본 NTT도코모, 인도네시아 거대 통신사인 Indosat, 대만 최대 통신제조 및 서비스 기업 Accton사, 호주 Open Sources SW 기업인 Open Kernel Labs, 홍콩 통신보안 솔루션 기업인 CPCNet 등 해외 기업의 사업설명회 및 우리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미팅도 활발히 진행돼 실질적인 비즈니스 개발 추진의 가교 역할도 했다.

ATIE는 데이터 통신 사업이 개화되던 1994년 한국·일본·호주·싱가포르·대만·인도·홍콩의 정보통신 대표단체들이 주축이 돼 결성, 매년 개최 국기를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해왔다. 내년 행사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情감있는 디지털세상  
스무살이 KAIT기 함께 합니다

**FTTH산업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서광주 KT 전무 선임



FTTH 산업 협 의 회 (FTTHC)는 4월 16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 서광주 KT 전무(네트워크부부장)

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FTTH산업협의회는 국내 FTTH 관련 업계의 정보교류 및 회원사간 유대강화와 u-Korea의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광통신 분야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컨버전스 시장 육성을 위한 민간 협의체로, 2005년 3월에 출범해 현재 삼성전자·대전전자·LS전선·LG전자 등 55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신임 서광주 회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80년 KT에 입사해 위성운용단장, 휴대인터넷사업본부장과 수도권 강남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현재 네트워크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신규 채용)**

<b>경영혁신본부장</b>	<b>통신서비스지원팀</b>
조 연 수 본부장 (4.23일)	박 형 준 사원 (5.1일)
<b>혁신기획실</b>	<b>명의도용방지팀</b>
오 영 근 사원 (5.1일)	윤 영 준 사원 (5.1일)

**철저한 준비로 FTA 성과 극대화 필요**  
**- 한·미 FTA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



협회는 지난 4월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T기업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과의 FTA협상 타결과 관련, IT분야의 협상 결과와 영향에 대한 정보 공유, 협상 타결 이후 정보통신산업계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정통부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을 비롯, IT 기기 제조업체, 통신 서비스 업체, SW 업체 등 80여명이 참석해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박사의 '한·미 FTA 분야별 협상 종합평가', 정통부 정책총괄팀장의 '한·미 FTA 정보통신분야 협상결과', 중앙대학교 이한영 교수의 'IT분야 한미 FTA 영향 및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의 '한미 FTA상 IT관련 상품 및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평가 및 대응'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유관 협 · 단체 협의회 『사회봉사대』 1社1村운동 및 봉사활동 전개



정보통신부 산하 17개 유관 협 · 단체는 사회공헌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정보통신 유관 협 · 단체 협의회 사회봉사대”를 결성, 매월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사무국을 맡기로 했다.

사회봉사대는 제 1회 사회봉사활동을 최근 한-미 FTA로 시름이 많은 농촌을 방문키로 결정하고, 농협중앙회의 소개로 4월 3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2리 마을’을 찾아 매실묘목 250주와 컴퓨터 3대를 마을회관에 기증하고, 고장 PC 수리, 간단한 인터넷교육 실시, 회관 내에 초고속 인터넷 3회선 1년간 유지시켜주는 등의 IT봉사활동을 벌였다.

‘정보하나무’로 명명한 매실묘목 식수에 이어 가진 정동2리 마을과의 자매결연식에서 이교용 사회봉사대 대표(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상근부회장)는 “한-미 FTA로 농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어려운 시기에 작은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식수한 정보하나무처럼 산업의 뿌리인 농촌과 정보통신산업이 접목되어 참다운 글로벌화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협회는 5.22일(화) 조선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1부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축하영상, 홍보물을 상영하고, 2부 화합의 시간에서는 축하공연, 타임캡슐 봉인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축하화환을 사절하고, 대신 IT제품(키보드, 마우스)을 기증받아 IT소의 계층 이웃에 기증할 예정이다.

### 제14회 멀티미디어기술대상 시상

협회가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IT분야의 핵심기술 발굴 및 개발을 위해 제정한 제14회 멀티미디어기술대상에 총 27개의 제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작품은 5월 중 1,2차 심사를 거쳐 6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된다.

### 제9회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 실시

협회는 제9회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에 접수된 총 303건의 제안을 심사해 1차로 116건을 선발, 이들을 대상으로 3일(5.9~5.11)간 에 걸쳐 창업예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향후 창업집중교육, 사업화실무교육 등을 제공받으며, 2차 심사를 거쳐 9월에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 정보통신포럼 개최

협회는 회원사 정보교류의 장 마련 차원에서 정보통신부 본부장을 초대, 심도 있는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정보통신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5월 17일에는 ‘한국의 디지털 혁명과 미래의 IT전략’이라는 주제로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이 강의했으며, 6월 20일(수)에는 설정선 정보통신협력본부장이 강의할 예정이다.